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와 관련하여

하를렘-암스테르담 교구장 주교가 공적으로 확인한 사항

신앙교리성과 토의하고 신앙교리성과 일치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마리아의 전구와 도움으로 인간의 보편적 형제애에 대한 헌신과 소망을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시며, 우리 민족들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교황 프란치스코 2019년 12월 12일 강론 중).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많이, 더 가까이 형제자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협력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참조: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 42).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애의 이 여정에는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도 함께하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 보편적 모성을 받아들이시어(요한 19,26 참조)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묵시 12,17)에게도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부활한 이의 권능으로 마리아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낳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버려진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으며, 정의와 평화가 빛날 것입니다.”(<모든 형제들, 278>).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마리아에게 사용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신학적으로 허용됩니다. 마리아와 함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 민족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는 모두가 서로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형제와 자매로 여기게 되는 세상, 긴밀하게 하나 된 세상이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합니다.

이 호칭의 승인은 다만 이 호칭이 드러났었던 몇몇 현상들의 초자연적 성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 또한 간접적으로 승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앙교리성은 지난 1974년 4월 5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효력을 발휘되고 1974년 5월 25일에 공포되었던 그 결정, 곧, 이다 페르데만 (Ida Peerdeman) 부인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소위 “발현과 계시들”의 초자연적인 성격에 대해 내렸던 부정적 판단을 재확인합니다. 이 판단은 소위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와 관련한 발현과 계시들을 전파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와 기도문의 사용은 발현과 계시 사건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 간접적으로라도 -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발현이라고 하는 사건을 인정하는 행위와 분리해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신앙교리성은 “여인”, “부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와 같은 칭호 자체의 사용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이 칭호로 부를 때에 목자들과 신자들은 이 칭호를 통한 신심행위가 발현과 계시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하며, 발현과 계시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내비쳐서는 안 됩니다.

2020년 12월 30일

이태리어 원문을 독일어로 번역.